



# 금속민투위

분쇄! 노동탄압  
강화! 산별노조  
완성! 주간연속2교대  
쟁취! 현장권력  
철폐! 비정규직

■ 발행인 : 의장 김 봉 윤 ■ 발행처 : 선전실(25-18호) ■ 게시기간 : 10월 11일까지 ■ 게시확인 : 사업부대표 이 흥 진

## 우리가 끝이면 너희도 끝이다

### 쫄쫄함의 극치 '함께 가는 길'

공장별 냉방시스템 5,000억원  
산보센터 개축 168억원  
보행로, 도로 및 정문공사 104억원  
화장실 디럭스화 23억원  
식당 증개축 377억원  
주차장 환경개선 83억원  
근무복 개선, 특식단가 인상 250억원

**총 6,005억원**

### 5만 조합원 피땀 빼돌린 돈

한전부지 매입, 기부채납, 공사비 20조원  
사내 유보금 117조 2,000억원  
현금성 자산 22조원  
정몽구, 정의선 15년 배당금 1,430억원  
웨스틴 리조트 광 매입 1,485억원  
배당금 2배로 올려 빼간 돈 5,000억원  
별도승호 임금인상 장기적 이득 1조원  
미르, K스포츠 재단에 헌납 111억원

**총 160조 8,541억원**

### 화장실 공사비까지 갖다 붙이고 즐거 없다는 사측, 쪽 팔리지도 않나?

사측 찌라시 '함께 가는 길'에서는 도로 및 정문공사 얼마... 화장실 공사 얼마... 주차장 공사 얼마... 특식단가 인상에 얼마... 등 총 6,005억원을 투자해서 노력했다. 추가제시 하랬더니 얼마나 갖다 붙일게 없었으면 노사협의회 합의내용인 화장실, 도로 공사비 타령이다. 그러곤 더이상 줄게 없단다. 정말이지 쫄쫄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백번 양보해 6,005억원 투자했다 치자. 그럼 조합원 피땀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한전부지에 퍼붓고 사내유보금, 현금성자산, 배당금 등으로 빼돌린 160조 8,541억원은 뭔가?

### 최대한 실질적 타격 주는 쟁의전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걸하진 말자!

추가제시 하겠다 해서 파업까지 줄이면서 본교섭 들어갔더니 찝끔 장난질이다. 한 번은 추가제시 조차 없었다. 이건 기만이다. 더이상 이따위 사측 장난질에 놀아나지 말자! 최대한의 실질적 타격을 주는 투쟁전술이 필요하다. 부서별 파업, 수출선적부두 봉쇄, 전국 출고사무소 봉쇄, 모든 공사 전면중단 등..... 생산의 주체인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